



INTERNATIONAL JOURNAL of  
CRAFTS and FOLK ARTS

Volume 4, 2023

문화유산

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탐바사야마의 주요 프로젝트  
오니시 히로미

##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단바사사야마의 주요 이니셔티브

### 단바 웨어

단바 웨어는 세토, 토코나메, 시가라키, 에치젠, 비젠과 함께 850년에 걸친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6대 고대 가마 중 하나입니다. 이 가마들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지속된 지속되는 전통을 보여줍니다.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7년 일본 문화청으로부터 "일본 유산"으로 지정되었으며, 이 중 단바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.



## 단바도자기축제-4만명의 관람객

단바 도자기 축제는 1978년부터 단바 사야마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공예 행사입니다. 2021년과 2023년, "가을의 단바 창고 마을 투어"는 10월 한 달 동안 방문객들에게 가마와 갤러리를 둘러보는 시간을 제공하여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.

이 행사들은 2019년까지 지정된 한 장소에서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.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여\* 2021년부터 행사 기간을 2~3주로 연장했습니다.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약 50개의 도자기 스튜디오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 변화는 또한 자연스럽게 관광객과 장인 간의 더 깊은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관광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, 이는 전반적인 관광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.



---

\* 2020년에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.

사사야마의 성곽 마을과 후쿠즈미의 우체국 마을은 일본 문화청으로부터 "역사적인 건물군 보존 지구"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이 지역은 전국의 10개 지역 중 하나로 모범 경관 개조 프로젝트로 지정되었습니다.

2021년에 마을 경관에 중요한 두 거리인 오테도리와 가와라마치도리의 전신주를 제거하는 것을 완료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달성되었습니다. 추가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전선을 땅에 묻거나, 도로를 아름답게 하고, 가로등을 개조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, 이 모든 것들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미관을 높이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. 그 결과, 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그 도시를 방문합니다.



### 단바 사사야마 역사 거리 예술제—18,000명의 관람객

단바 사사야마 역사 거리 예술제는 "역사적인 건물군 보존 지구" 중 하나인 카와라마치 지구 주변에서 개최되는,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비엔날레입니다. 그 축제의 중심 주제는 전통적인 마차 마을의 집들을 예술 박물관으로 바꾸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약 30개의 마차가 공예와 현대 예술의 혼합을 보여주면서, 창의적으로 갤러리로 변형되었습

니다.

이 행사는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, 문화 교류를 촉진했고 그 지역의 관광 진흥에 기여했습니다. 그 축제 장소는 개조된 마차와 일반 거주지 내에 위치한 카페와 호텔을 포함합니다. 그 행사는 도시 내외의 예술가, 공예가, 그리고 건축가를 포함한 46개의 전시업체를 끌어 모았습니다.



## 단바 사사야마 공예촌

단바사사야마시(Tambasasayama City)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도시로 이주하는 공예가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. "단바사사야마 공예 마을"은 이러한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설립되었습니다. 또한, 공예 시장 및 오픈 팩토리 행사가 2021년에 개최되었고, 워크샵 스타일의 행사가 2022년과 2023년에 개최되었습니다. 이민자들은 새로운 공예 문화를 정착시켰고, 그 마을은 공예와 민속 예술로 유명한 창조적인 농촌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

UCC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간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주요 이니셔티브가

실행되었습니다.

단바사사야마시는 다음과 같은 일부 파트너십 및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.

- 2022년 창마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(Ceramics)와 함께하는 장인 및 장인을 위한 국제 역량강화 워크숍
-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

